

정국의 핵 떠오른 '공수처'

민주 백혜련-바른미래 권은희 각각 공수처 법안 발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vs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공수처장 임명절차... '대통령이 임명' vs '국회 동의' 한국당 "공수처 절대 반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관련 법안 중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 설치에 '절대 반대' 입장인 자유한국당과 달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가 필요하며 공수처 설치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모두 올라와 있다. 그러나 세부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백 의원 안과 권 의원 안은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의 명칭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낸다. 백 의원 안은 해당 명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지정하고 있는 반면, 권 의원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조직 구성에 있어서는 두 안 모두 처장과 차장을 각각 1명씩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공수처 검사 등의 구성에는 이견을 보였다.

백 의원 안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공수처 검사와 30명 이내의 공수처 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반면 권 의원 안은 처장과 차장 포함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공수처 검사 등을 두도록 했다.

입장 차가 가장 큰 부분은 공수처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처장의 '임명 절차'다. 판사·검사·변호사, 관련 학계 출신 등을 자격 대상으로 두고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권 의원 안과도 협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해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사법개혁이 충분하며 자담의 권성동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1차적 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 및 기소 등을 통해, 2차적 통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수사 전반에 걸쳐 통제가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은 이에 더해 검찰에 '수사 통제권(수사요구권)'도 부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했다. /뉴시스

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공수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방식도 이견 중 하나다.

백 의원 안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을 갖되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권 의원 안은 이러한 기소권에 대해서도 '기소심사위원회'를 뒤편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처럼 백 의원 안과 권 의원 안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전담 사법개혁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가진 여야 '3+3'(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동에서 권 의원 안으로 합의를 도출하기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이상희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우리 당에서는 백 의원 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면서도 "(권 의원 안과도 협의할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고 말해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사법개혁이 충분하며 자담의 권성동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1차적 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 및 기소 등을 통해, 2차적 통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수사 전반에 걸쳐 통제가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은 이에 더해 검찰에 '수사 통제권(수사요구권)'도 부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했다. /뉴시스



경제장관회의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도민의 삶의 질 한단계 UP

도,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 본격 추진

전북도는 2020년부터 도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15개 사업 규모 432억원을 확보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문화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2020~2023) 계획안을 마련,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

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생활SOC 복합화 시설은 생활문화센터, 복합문화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 활동 및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문화분야는 지역 거점 문화공간 조성 및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을 위한 문화 복합공간으로 정읍 '문화복합센터', 무주 '복합문화도서관', 전주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총 11개 사업 규모 293억원을 확보했다.

체육분야는 스포츠 여가 수요를 고려한 남원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순창 '세대 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순창 '동계면 종합체육관',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등 총 4개 사업 규모 139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문화시설 확충 사업인 전통문화 및 향토문화 육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19 지방문화원의 시설 지원사업으로 전주문화원 리모델링, 익산문화원 증축, 정읍문화원 신축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8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도 환경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체육 분야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도민의 생활패턴의 변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확대

전라북도는 화재와 도난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사찰에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2019년 9개소, 2020년 2개소 설치하면 전체 118

개소 중 114개소에 구축을 완료하게 되며, 나머지 4개소는 2021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방재시스템은 전기화재 예측시스템과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으로 구축된다.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이 도입되

면 전기화재의 직접적 요인인 아크열과 스파크를 사전에 검출하며, 원격으로 화재 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게 된다.

또한,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은 화재, 침입, 가스누출 등 각종 재난상황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감지함으로써 초기 대응이 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현대자동차, 김제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입주기업 대상 세미나 성료

전북특장차산업발전협의회는 최근 김제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에서 전북 특장산업분야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총 40여명의 전북특장차산업발전협의회 회원(이하 회원사) 및 관련기업

(타다대우)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특장실 업무 및 특장차 시 소개, 현대자동차와 특장협의회 간 협력방안에 대하여 진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를 주재한 현대자동차 정종철 상무는 회원사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특장관계기업과 기술자료 공유, 특장 고객의 요구에 따른 기술지원 사례 발표 등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으며, 참여 회원사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김제=곽도태 기자

청소년의 삶 속에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내일 두볼페스타·청소년성취포상제 개최 30여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체험부스 운영

전북도와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019 전라북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 '두볼페스타' 및 청소년성취포상제를 내일 개최한다.

전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법에 근거, 전라북도가 설치한 청소년활동 정책 수행기관으로 도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기관으로 본 행사는 전주 사랑의 거리 행사장(전주 객사 앞 충경로 일대)에서 내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오후로 22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도내 곳곳에서 성심을 다해 지원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고 축하하는 행사로, 이날 시상식은 청소년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최된다.

우수청소년자원봉사자 시상식에서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봉사활동사례를 심사하여 선정한 개인 및 동아리, 지도자, 기관 41팀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상, 전라북도지사 표창, 전라북도교육감상,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상,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 등을 시상한다.

또한 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에서는 1년동안 청소년들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성취한 청소년 2명에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명의의 금장, 은장, 동장을 수여한다.

'두볼페스타'에서는 시상식과 더불어 전라북도내 청소년 동아리 30여개 팀이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청소년 참정권 홍보 먹거리 나눔, 내일아트, 캘리그래피, 생명존중작 등 다채로운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구병호 도 복지여성국장은 축하사에서 "전북의 정신은 이웃을 사랑하고 자발적인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헌신으로 그 빛을 이어오고 있다"며 "나눔과 배려의 가치가 우리 전북 청소년의 삶 속에 뿌리내리고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더 많은 희망으로 맺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謹弔

삼가 알려드립니다

儒學者 화석(和石)김수연(金洙連)先生 儒林 선비 葬 公告

謹弔

절제와 겸손으로 평생 선비정신을 실천해오시고 유학자로서 후학양성에 헌신해오신 화석 김수연(향년 94세)선생께서 노환(老患)으로 별세하시기에 후학들의 뜻을 모아 儒林 선비 葬으로 영결식을 거행함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 빈 소: 학성강당(전북김제시 성동길 31-23)

□ 발 인: 2019년 10월 20일(일) 09시 30분

□ 장 지: 선영하

□ 문 의: 063-544-8330(학성강당 유사), 063-545-2016(김제사무실)

010-9437-3880(황배연 사무국장), 010-8628-0900(김학수 비서)

□ 상 주

아들: 김종순 중빈 중배
중비 중희(국회의원)

사위: 우춘학 맹태영

□ 화석 김선생 양례집사기

- 도유사: 임용순, 정세균, 박지원
- 부유사: 성백효, 김충효, 유성업, 최재경, 유근, 박준배, 권익현, 온주현
- 호 상: 윤주남, 박창규, 강민석, 배원식, 김영열
- 축 관: 김조영, 김길승, 백종관
- 상 배: 신광우
- 사 서: 서삼길, 김용학, 김영찬, 신윤철, 정사현
- 사 화: 맹태영, 김주태, 우동환, 김영필
- 집 사: 황금섭, 최계형, 송효준, 이종환, 김현철, 고상연, 고석현, 김태은, 김상봉, 김상운, 김석희, 김석철, 이형진, 이형배, 이종익, 김철호, 이진관, 박은식, 박장영, 안성, 안태석, 오재원, 서동수, 석진환, 최윤광, 최병교, 박종문, 함윤호, 고윤만, 김현상, 류수경, 류형준, 윤열인, 윤유순, 조선기, 조찬연, 최병호, 홍성립, 윤선욱, 임상기, 조승식, 조수근, 강현석, 고덕곤, 권돈오, 김상석, 김신명, 김용현, 나부근, 나사순, 박운용, 박현기, 안관영, 윤맹원
- 치 관: 고근영, 서상석, 고진수, 강권순, 함성철, 송기훈, 이진명, 유인수, 김동치
- 서명정: 임장욱
- 대소렴: 김현용, 김종대

- 음 빈: 원수익, 최우석, 오종필, 정원영, 김영석, 임수근, 한종욱, 주기현
- 영 배: 김성수, 박천호, 김병호, 김경열, 이갑순, 이춘만, 이금산
- 제 주: 박근
- 외 무: 김복남, 서백현, 박두기, 김영자, 정성주, 이병철, 김주택, 강병진, 임영택, 장덕상, 이창민, 김창수, 함길권, 최승운, 강원구, 최진오, 박광양, 이민섭, 문홍길, 이정용, 신광식, 김영주, 김왕배, 김종성, 김상복, 조종문, 장완식, 유강일, 김영, 김용규, 박정예, 황배연, 임진욱, 이희영, 박종관, 김택령, 오석근, 서해림, 김관권, 이형석, 송완석, 나양관, 김영현, 정인수, 김기수, 박상순, 김원수, 김성배, 백선권, 최병돈, 김중수, 김학주, 김원중, 황형복, 김연수, 김석준, 김종열, 이방운, 김원철, 신순식, 김성수, 김병호, 김형대, 김원철, 오광영, 허인욱, 설정훈
- 독계문: 김동현, 김태일, 송조
- 양례위원장: 최락도, 장성원, 박인희, 이진석, 소순준, 홍기재, 김진규, 박기준, 김병학, 정주원, 김진유, 김금태, 정희운, 나우진, 김덕부, 김영규, 김원기, 김찬홍, 조승근, 최정호
- 직 일: 서동진

원 기해년(음) 구월 십팔일 (양) 시월 삼육일

유학자 화석 김수연 선생 유림 선비장 양례위원회